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amsung C&T confirmed for \$2bn-plus Qatargas contract for North Field work

삼성물산이 Qatargas의 NFE(North Field Expansion) 1st phase 프로젝트의 giant storage tank EPC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됨. 해당계약은 옵션계약을 포함하여 20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라고 보도됨. (Upstream)

Hyundai Heavy makes LNG bunker vessel debut with Korea Gas deal

현대중공업은 지난 주 Kogas의 자회사 Korea LNG Filling으로부터 7,500CBM급 벙커링선을 수주한 바 있음. 기존에 중소형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LNG벙커링선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dns)

China to import more LNG from Russia

러시아(Novatek)가 중국(Shenergy)과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계약된 LNG는 Arctic 2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15년간 3백만톤 이상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Golar, 한국에 FLNG 발주준비

Golar LNG가 한국 조선소에 FLNG를 발주한다고 보도됨. 이와 관련, Golar LNG는 5MTPA FLNG 디자인 작업을 끝냈으며 이를 건조할 한국 조선소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고 보도됨. 해당 조선소로부터 턴키베이스의 건조 제안서를 받았으며 디자인 작업에 10년이 소요됐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탱커 선주들 Opec+ 동향 주시

유조선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불황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3월 4일에 열리는 Ope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원유 생산량이 하루 300만배럴 증가하면 VLCC 수요가 약 75척 늘어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CMA CGM, LNG추진선 내년까지 32척 운용

CMA CGM은 이미 23,000TEU급 LNG추진컨테이너선 5척을 유럽항로에 투입하였다고 보도됨. 오는 연말부터 15,0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미주 서안 항로에 투입하고 2022년까지 여러 사이즈의 LNG추진 컨테이너선 32척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